

금융위원회	보 도 자 료			금융감독원
	보도	2017.2.28.(화) 조간부터	배포	2017.2.27.(월)
책 임 자	금융위 신용정보팀장 고 상 범(02-2100-2620)	담 당 자	오유정 사무관(02-2100-2621) 권진웅 사무관(02-2100-2625)	
	금융위 IT-금융정보보호단 신용정보실장 임 채 울(02-3145-7850)		손한석 팀 장(02-3145-7845)	

제 목 : 「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」을 개정하였습니다.

◆ 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그간 금융회사 등에서 제기된 질의·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「금융분야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」을 개정하였음

I. 추진배경
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지원하고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신용정보법)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업무 처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
 - 「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」을 발간(13.7월)하고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왔음
 - 이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층 강화된 신용정보법이 개정·시행되어 개인신용정보 동의방식 개선, 개인 신용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로이 도입·운영됨
 - 이러한 제도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및 8개 금융협회가 실무전담반*을 구성·운영하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금융위원회,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최종안을 확정하였음
- * 은행·여신·금투협회, 생보·손보협회, 저축은행중앙회, 신용정보·대부협회

- 1 -

II. 주요 개정내용

□ '14년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

- (신용정보법) 개인신용정보의 수집·제공시 필수와 선택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동의 받도록 동의방식 개선 등
- (개인정보보호법) 법령상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, 보관시에는 암호화 등을 통해 보안성 강화

< 개정 신용정보법 주요 반영사항 >

내 용	관련법규	시행일
1. 개인신용정보 처리시 수집 최소화 원칙 등 도입	법§15	'15.9.12.
2. 개인신용정보 수집·조사 및 처리 위탁시 암호화 등 안전 확보 조치 강화 및 수탁자 교육 의무화 등	법§17, 시행령§14	'15.9.12. '16.3.29.
3. 일정규모 이상의 신용정보 제공·이용자의 경우 신용정보 관리·보호 전담 임원 지정 의무화	법§20③	'15.9.12.
4. 거래관계 종료시 최장 5년 이내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및 분리보관 의무화	법§20의2	'16.3.12.
5. 개인정보 활용 동의시, 필수적·선택적 정보의 구분 동의	법§32④,⑤	'16.3.12.
6. 정보주체의 본인 정보 이용·제공 사실에 대한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화	법§35①, 시행령§30	'16.3.12. '16.3.29.
7. 정보주체의 본인 정보 삭제 요구권 신설	법§38의3②	'16.3.12.
8. 신용정보 유출사고 대응 메뉴얼 마련 의무	법§39의2②	'15.9.12.
9. 마케팅 용도로 신용정보 활용시 별도 사전동의 의무화	법§40	'15.9.12.
10. 모집업무 위탁시, 수탁자 정보 취급경위 및 불법 취득여부 확인 의무화	법§41의2	'15.9.12.

<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 반영사항 >

내 용	관련법규	시행일
1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 조치 강화	법§23 및 §24	'15.7.24. '16.9.30.
2.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범위 제한	법§24의2	'15.7.24. '16.9.30.
3. 주민등록번호 처리시 암호화 의무 강화	법§24의2 및 시행령§21의2	'16.1.1.
4.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강화	법§29 및 고시	'15.2.13.
5.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강화(정보보안 전문가→임원)	시행령§32	'16.7.22.

② 개인(신용)정보 보호업무 기준 명확화 및 판례·사례 제공

- **(법률적용)** 개인정보보호법·신용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간 적용관계를 명확히 제시
- 개인 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등 구체적인 처리단계별로 우선 적용규정을 상세 설명
- * (예) ① 개인신용정보 수집 → 신용정보법 제15조 및 제16조 적용
그 밖의 개인정보 수집 →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적용
② 개인신용정보 처리업무 위탁 → 신용정보법 제17조 적용
그 밖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→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적용

※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관계

구분	개인신용정보 (신용정보법)	개인정보 (개인정보 보호법)
수집	법 §15, §16	법 §15
이용	법 §32③·④, §33, §34	법 §15, §18
제공	법 §32, §34	법 §17, §18
고유식별정보 처리	(수집)법 §15, (이용·제공)법 §32~§34	법 §24
민감정보 처리	(수집)법 §16, (이용·제공)법 §32~§34	법 §23
위탁	법 §17	법 §26
이전	법 §32	법 §27
안전성 조치	법 §19	법 §18⑤, §23②, §24③, §25⑥, §29
신용정보활용체제, 개인정보처리방침	법 §31	법 §30
신용정보관리·보호인, 개인정보 보호책임자	법 §20	법 §31
파기(삭제)	법 §20의2	법 §21
정보주체의 권리보장	법 §35, §37, §38, §38의2, §38의3	법 §35~§39
유출(누설) 신고 및 통지	법 §39의2	법 §34

- **(판례해석)** 업무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**관련 판례, 유권해석 및 해설서 내용*** 등을 수록

* 개인신용정보 정의 관련 판례,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Q&A 등

< 가이드라인 내 판례 예시 >

【참고】개인신용정보 정의 관련 참고 판례 발췌 :
<서울고등법원 2010. 5. 10. 자 2009라1941 결정>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…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면,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는 … 일반적·포괄적 동의가 아니라 구체적·개별적 동의로 해석되고, (이하 생략)

- **(세부기준)** 금융회사의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삭제 등의 **이행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세부기준 제공**

< 가이드라인 내 세부기준 예시 >

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종료 판단 참고기준 및 예시

-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채권을 매각하는 등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된 시점
-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금융회사간의 모든 금융거래가 종료되거나 회원 탈퇴된 시점
-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모든 보험계약 해지 또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시점
-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모든 계좌가 폐쇄된 시점
- 그 밖에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회원을 탈퇴하거나 거래종료된 시점 등

개인신용정보의 분리보관 및 삭제 방법

☐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라,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된 개인신용정보는 2단계에 걸쳐 분리보관 또는 삭제하여야 함

☐ **개인신용정보 관리방법**

- **(1단계)**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정보와 접근권한을 분리하는 등 보안통제를 강화하여 운영
- * 같은 Table일 경우 일반 직원의 조회를 차단하거나 접근권한이 강화된 별도의 DB 또는 Table로 관리하고, 접근권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접근권한을 통제·기록 보존 (이하 생략)

Ⅲ 금융권 개인(신용)정보보호 관련 질의사항 반영

- 그간 금융회사가 개인(신용)정보 보호업무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정리하여 Q&A 수록(총 82개)

< 가이드라인 내 Q&A 예시 >

<p>[Q1-1]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신용정보법')상 개인신용정보의 정의에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(이하 '금융실명법') 제4조제1항에 따른 "금융거래정보"가 포함되는지요?</p> <p>(관련조문) 신용정보법 제2조 제2호,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</p>
<p>[A] 네, 포함됩니다. 다만, 금융실명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이 신용정보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, 개인신용정보보호, 개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및 분리보관 등 금융실명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것은 신용정보법을 적용합니다.</p>
<p>[Q2-3] 회사 직원이 과거 거래정보 조회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을 정보주체와 협의 없이 몰래 가입시켰을 시, 법률 위반 사항이 있나요?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?</p> <p>(관련조문) 신용정보법 제33조,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</p>
<p>[A] 신용정보법 제33조에 따라,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을 시에는 같은 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위반이라고 판단됩니다.</p> <p>*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목적 범위에서 이용 가능하며, 목적을 넘어가는 범위로 이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 위반사항임</p>
<p>[Q2-5]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하여 기 동의한 고객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,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기존 등록된 정보와 상이한 경우 추가적인 동의절차 없이 이 번호로 현행화 가능한지요?</p> <p>(관련조문)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, 제15조</p>
<p>[A]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·완전성·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합니다.</p> <p>따라서, 당초 전화번호 등의 처리에 대하여 동의한 고객이라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발신자번호 표시 기능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전화번호로 고객 전화번호를 현행화하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</p> <p>다만,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자번호가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고객에게 전화번호의 최신성 여부를 확인한 후 향후 이 번호로 현행화하겠다는 내용을 알려야 할 것입니다.</p>
<p>[Q3-2] 업무제휴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제휴업체(카드사, 공동 마케팅사 등)와 금융회사의 관계를 위탁 관계로 볼 수 있는지요?</p> <p>(관련조문) 신용정보법 제17조 및 제32조,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, 제18조 및 제26조</p>
<p>[A] 제휴업체는 통상적으로 각자의 업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금융회사와 위탁관계가 아니라 제3자 제공으로 보아야 합니다.</p> <p>※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은 기관 내부의 업무를 외부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대신 처리토록 하는 일종의 아웃소싱(Outsourcing)을 말하는 것임</p>

- 5 -

Ⅲ.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

- 개정된 「**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**」을 배포^{*)}(17.2월)하여 금융회사의 **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해도를 제고**하고 **자제적으로 법률을 준수하도록 안내·지도**함으로써
 - 금융소비자의 **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·처리·관리**될 수 있는 **신뢰감 있는 금융거래 환경** 마련
 - * 각 업권별 협회를 통하여 인쇄책자를 배포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도 전자파일을 게시

(다운로드 방법)

- ☞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<http://www.fss.or.kr>) - 업무자료 - 공통 - 개인정보보호
- ☞ 개인정보보호 포털(<http://www.privacy.go.kr>) - 자료마당 - 참고자료

- 향후 동 가이드라인에 **법령 개정사항** 등을 **지속적으로 반영**하여 금융회사가 **개인(신용)정보보호**를 위해 준수해야 할 **제도** 등을 **안내**할 예정

<참고>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목차

「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」 목차

I. 가이드라인 개요

II. 기본원칙

III. 개인(신용)정보 처리단계별 원칙

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
2. 개인(신용)정보의 이용
3.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
4.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
5. 개인(신용)정보 처리 업무 위탁
6. 영업양도·양수에 따른 개인(신용)정보 이전
7. 개인(신용)정보의 안전한 관리
8.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·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
9.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
10. 개인(신용)정보의 파기(삭제)
11. 정보주체의 권리보장
12. 개인(신용)정보의 누설·유출시 조치 방법

IV. 금융권 개인(신용)정보 보호 관련 FAQ

V. 업종별 개인(신용)정보 처리 사례